

인간과 하천

3

아버와 함께하는 하천여행

# 우리 고향 하천, 창릉천을 거닐며...



손 예 린 | 경기도 일산 신촌초등학교 6학년  
(yerinsohn@naver.com)



우리 가족은 주말이면 야외로 나간다. 보통 사람들은 놀이동산이나 영화관 같은 곳을 가지만, 우리 가족은 특별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2학년 때부터 고봉산 습지 탐구, 민물고기 생태 탐구, 전통 5일장 답사 등을 다녀왔다.

이번 창릉천 답사도 우리 고향 가까이에서 흐르고 있는 창릉천에 직접 가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자 시작하게 되었다. 그곳을 흐르는 긴 물줄기와 날으는 흰 백로를 보면서 아름다운

물길 공원으로 꾸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릉천을 구간별로 직접 탐사하며 오염상태와 주변환경을 관찰하기로 하고 먼저 창릉천을 이해하기 위해 식물도감과 관련 지도를 살펴보았다.



자연스런 창릉천 풍경

우리 고향 덕양구를 흐르는 지방2급하천인 창릉천은 덕양구 북한산 북한동과 효자동 사기막골, 인수봉, 노적봉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에서 시작된다. 지축동과 삼송동-원당-화전-행주산성 아래의 한강까지 고양시 덕양구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흐른다. 한강 제1지류인 자연하천이며 21km 전 구간이 그린벨트인 훌륭한 자연하천이다. 40여개의 소하천이 흐르는 고양시의 젓줄이다.

주변 들판엔 농작물과 화훼를 재배, 생산한다. 물의 흐름이 자연 그대로 살아 흐르는 천연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현재는 점차 하천주변이 오염되고 있으나 다른 냇강에 비해 물이 맑으며 수초가 많아 삼송동-도내동-강매동에서는 낚시하는 어저씨들을 만날 수 있었다. 누치, 피라미, 잉어, 붕어, 메기가 살며 월척도 잡힌다고 한다. 장마철에는 가물치, 뱀장

어, 참게도 한강에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낚시하는 아저씨들이 잡은 것을 눈으로 직접 보니 신기하기만 했다.



화도교 주변에서 낚시하는 아저씨들

## 5월 20일(토), 화도교-창릉교

드디어 오늘부터 화도교를 기준으로 3구간(상류, 중류, 하류)으로 나눠 창릉천을 답사하기로 했다.

가라피를 지나 한창 건설중인 행신지구 아파트 단지에서 서울 수색쪽 대로로 차로 2분 정도 가니 화도교가 보인다. 다리를 건너자마자 좌회전하여 우측제방길(홍도제방길)을 따라 가니 흰 물새들이 날고 있었다. 또 수초가 우거진 곳에 낚시꾼들이 있었다. 어떤 아저씨는 붕어를 5마리 정도 잡았다. 어제는 메기 2마리를 잡았다고 한다. 300m쯤 더 올라가니 제2화전교가 나타났다. 1km 정도 더 올라가니 창릉교가 나타났다. 이곳까지는 물이 많고 폭이 넓었다. 하지만 그 위쪽으로는 물도 별로 없고 물길 폭이 좁아서인지 물이 흐렸다. 제2화전교 밑 보에 고여 있는 물은 많이 오염되어 있었다. 경작 금지 팻말의 제방 부근에는 돼지풀, 억새등이 자라고 있었다. 모래톱엔 갈대들이 많았다. 제방에는 산딸기 꽃봉오리에 예쁜 나비들이 앉아 있었다. 백로들이 작은 모래톱에서 한가로이 쉬고 있었다. 동쪽으로 삼각산(북한산)배경이 희미하게 보였다. 환경감시초소엔 시설도 없고 사람도 없었다. 아카시 야가 냄새가 향기롭고 빠꾸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모래톱 위를 사이 좋게 날는 물새

## 6월 4일(일), 은평뉴타운 - 홍도제방길 상류지역인 구파발 은평뉴타운홍보관 - 지축교 - 싹땃밭교 - 북한산 등산로 입구 - 북한천다리 - 총효교 - 안산교 - 효자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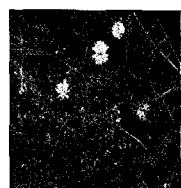
- 지축교는 폭은 넓으나 물의 양이 적었다. 물버드나무가 무성했다. 지축기지 부근에는 수생식물들이 우거져 있었다.
- 싹땃밭교 주변에는 아파트 공사 중인 크레인들이 많이 서있고 흰새들이 평화롭게 날고 있었다.
- 송추쪽 노고산길은 폭이 좁고 물이 갑자기 줄었다. 효자 2교까지 올라 북한산을 올려다보았다. 이곳 사기막골과 백운동 계곡에서 흐르는 물과 북한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북한천과 싹개천들이 합쳐져 창릉천이 시작된다.
- 북한천교 위 부근의 물줄기와 북한천 다리 밑의 물은 색깔이 차이가 났다. 북한천교 밑 맑은 북한천에는 피라미 떼들이 놓고 있었다.
- 북한산 등산로 입구 앞에 폭이 넓은 창릉천이 본격적으로 흐르고 있었다.
- 삼천사쪽 갈래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창릉천과 합류하고 있었다.
- 덕수교(삼송검문소) 부근에서는 하천이 다시 넓어졌다.
- 세솔다리 밑은 물이 많고 맑았다. 바로 이 부근 전체에 삼송 신도시라고 하여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한다.
- 홍도제방길을 따라 창릉교까지 가니 부근의 오염된 물이 고여 있는 넓고 낮은 콘크리트보가 보였다.
- 제방길 따라 뚝새풀, 고마리, 억새, 물버들, 개망초, 클로버, 쇠뜨기, 여뀌, 갈풀 등 여러 식물들을 관찰해 보았다. 갈대와 억새, 돼지풀들이 많았다.



뚝새풀



고마리



클로버

### 6월 18일(일), 호자2교-싸릿말교

그동안 2차례 내린 비로 물의 양이 많이 불어났다. 맑은 창릉천이 아름답게 햇살에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다. 싸릿말교 앞에선 크레인 수십 대가 빙빙 돌며 아파트 단지를 한창 건설 중이었다. 싸릿말교 옆에 폐기물 투기 감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물버드나무, 갈대, 물억새, 꽃창포, 붓꽃이 심어진 곳에 개구리와 오리가 노는 창릉천을 상상해 보았다

### 6월 24일(토), 싸릿말교-덕수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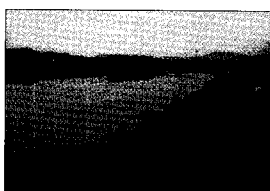
비가 온 후 흐르는 물의 양을 관찰하려고 싸릿말교부터 덕수교 사이의 제방길을 답사하였다. 그동안 창릉천 주변의 풀과 나무들이 더욱 푸르려진 것 같았다. 그러나 지축교 밑 물웅덩이가 고여서 썩어가고 있었다. 제방길을 따라 걸어가며 주변을 정리하고 관리하여 맑고 깨끗한 창릉천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돌아오는 길에 맑게 흐르는 창릉천 냇물에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이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자연하천 따라 시원한 강바람과 산바람을 맞으며 산책과 자전거 타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 7월 17일(월), 화도교-제2화전교

비가 온 후 흐르는 물의 양을 관찰하려고 비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온 후 창릉천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몹시 궁금해 엄마, 아빠와 차를 타고 화도교로 가보았다. 제방길을 따라 제2화전교까지 관찰해보니 하천의 물이 많이 불어나 낚시를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물이 빠지면 한강에서 거슬러 올라온 물고기가 많아 낚시하는 아저씨들이 많을 것 같다.



불어난 물로 교각 일부분이 물에 잠긴 화도교



창릉천과 나

### 7월 29일(토), 화도교 밑-행주산성 밑(방화대교)

비가 그쳐 장마가 끝난 줄 알았더니 요 며칠 사이 비가 계속 와서 아빠가 출근길에 자세히 보니 창릉천의 물이 많이 불어나 있다고 하셨다. 오늘은 그동안 관찰 못했던 화도교~한강까지의 구간을 살펴보기로 했다.

화도교에 도착해서 보니 장마로 물이 너무 많이 불어나 조금 무서웠다. 화도교 바로 옆 오른쪽에 도내 배수펌프장이 있었다. 다시 나와 건너편 주유소 바로 옆 샛길로 덜컹거리며 갔는데 물이 너무 넘쳐 갈수가 없었다. 행신 가라미틀 지나 강매역 KTX 차고기지 위의 육교차길을 건너 한 5분을 더 가니 강고산 부근 바로 밑에 창릉천이 계속 되었다. 그런데 창릉천인줄 알았더니 창릉천이 아니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창릉천과 합쳐지는 성사천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놀랄만한 일이 생겼다. 바로 강매 배수펌프장이라는 곳에서 물을 조정하고 있었다. 큰 둥그런 철로 된 구멍이 4개 나 있었는데 그중 하나만 열어서 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휴탕물이 너무 무섭게 소용돌이치는데 그 부근에서 아저씨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 물살을 보니 정말 정신이 아찔했다. 아빠가 더 자세히 관찰하라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사진만 찍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런데 물 냄새가 이상했다. 한강과 만나는 곳이 가까워서 강물 냄새라고 아빠가 설명해 주셨다. 거의 창릉천이 끝나는 지점이라고 한다.

약 400m를 더 가니 인편공항으로 가는 붉은색의 방화대교가 보이고 그바로 건너편으로 행주산성이 보였다. 예전에 몇 번 올라가 봤던 우뚝 선 행주대첩비도 보였다. 그곳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왜군들과 싸우신 조상들이 생각났다. 바로 창릉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이다. 지금까지 봤던 창릉천과 달리 폭이 넓은 창릉천이 한강과 만나 비릿한 강물냄새가 났고 휴탕물이 맴돌고 있었다. 이곳도 역시 몇몇 아저씨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 아빠가 사진을 찍었는데 물에 잠긴 모래톱의 버드나무들 위로 백로 3마리가 불안하게 앉아 있었다. 창릉천 바로 옆의 비닐하우스는 완전히 망가져 앙상한 철기둥만

드러내고 있었다. 아빠는 창릉천이 북한산 부근에서 시작되어 이곳이 끝나는 지점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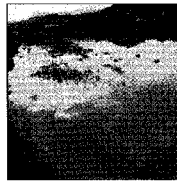
참, 흑시 하며 돌아오는 길에 화도교 밑 물길 때문에 끊긴 구간(도내수펌프장 부근~세월교)을 둘러보려고 반대쪽에서 거슬러 올라가려 했으나 이곳도 역시 길이 물에 잠겼다. 세월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물이 잠기고 바로 옆에 문화재인 아치형 돌다리(석교)가 보존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에 그곳도 다시 돌아보려고 한다. 동네 아저씨들에게 여쭙보니 답사 못한 물길이 500m 정도라고 한다.



강매 배수 펌프장



창릉천 하류와 행주산성



장마로 불어난 창릉천

## 8월 17일(목), 세월교-화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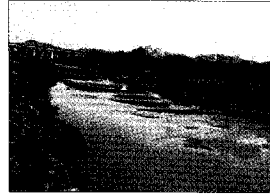
장마 때 못 보았던 화도교에서 세월교 구간 500여m를 답사하였다. 들판에 잠겼던 물이 다 빠져나가 비릿한 냄새가 물씬 풍겼다. 강매배수 펌프장부터 화도교까지 좁은 길로 한참 거슬러 올라갔다. 아저씨들이 두 군데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고양시 향토유적 제33호 강매동 석교(돌다리)를 보았다. 일산, 지도, 송포 주민들이 서울로 농작물을 실어 나르던 다리였다고 한다. KTX 고속철도선과 경의선, 화도교가 겹쳐져 보였다.

드디어 5월 20일부터 답사해온 창릉천 관찰 · 답사 일정이 다 끝난 것이다. 8월 17일, 창릉천 21km의 모든 구간을 다 살펴본 것이다. 이전 그동안의 답사 일지와 답사하며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하는 일만 남았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창릉천의 자연환경에 대해 배웠고 맑은 하천을 지키고 사랑해야겠다는 점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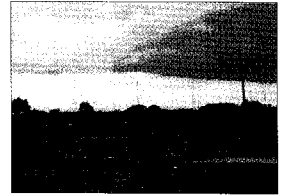
그동안 휴일마다 나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엄마, 아빠께 감사드립니다.

창릉천은 어느 인공공원과도 비교 되지 않는 훌륭한 자연 하천이다. 쾌적하게 창릉천을 잘 가꾸고 관리하여 제2의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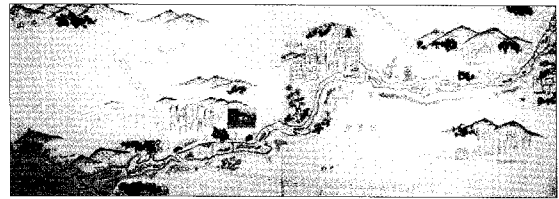
계천으로 개발하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 보았다. 훌륭한 생태환경 자연 물가 공원으로 잘 개발하고 가꾸면 인공적 냄새가 풍기고 복잡스러운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휴식 공간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창릉천 옆에 주차장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화도교에서 세월교 구간의 물 빠진 모습 (6차 답사 때 못봤던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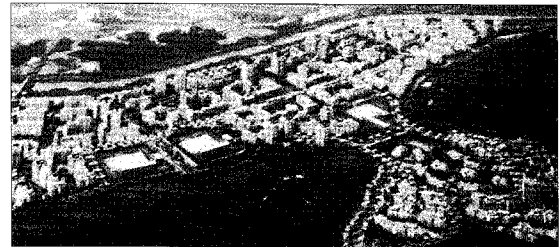


장마 때 주변 모두 물에 잠겼던 들판 (강매동 돌다리 향토유적 제33호)



산바람을 맞으며 맑은 창릉천에서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싶다.

♣ 내가 꿈꿔보는 아름다운 우리 고장의 창릉천을 그려 보았다.



산바람을 맞으며 맑은 창릉천에서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싶다.

제방길 따라 체육시설(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등)과 산책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으면 한다. 될 수 있는 예쁜 벤치도 만들고 폭이 좁은 곳에는 징검다리도 만들고 장마철을 대비해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높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큰 아파트들이 창릉천 주변에 많이 들어선다고 한다.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때 창릉천도 함께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창릉천이 어떻게 개발되고 어떤 모습으로 깨끗하게 변할지 궁금하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발·보호하여 맑은 물이 흐르는 훌륭한 자연 하천공원으로 되기를 소망해 본다. ☺